

「파주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설계공모」 심사평

일시 | 2022. 12. 13. (수)

장소 | 파주시청 대회의실

당선작 (04)	본 대지의 특성을 이해한 배치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구분과 공용공간의 적절한 구분과 면적 설정을 통해서 내외부가 합리적이면서도 풍성한 계획안이 되었다고 생각됨. 아파트, 기존 가로 진입로, 도서관, 그리고 전면 대로와 건너편 문산천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이 계획안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음
2등작 (27)	기존 가로 진입로에서 시작된 진입외부공간이 중정으로 확대되고 그 중정은 적절한 크기로 본 계획 건물에 골고루 영향을 주고 받게 디자인하여 친숙하고 넉넉한 공간을 만듦. 그리고 중정의 끝에 식당을 배치함으로써 중정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3등작 (36)	전면 대로변과 문산천에서 바라보이는 건물의 정면을 알맞은 높이와 프로그램의 배치로 공간이 명확하면서도 풍성하도록 계획함. 도서관 쪽에서 진입하는 동선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 기존 가로 진입로에 건물의 출입구를 배치하여 입구성도 확보함.
4등작 (14)	중정형이지만, 개방적인 외부공간이 되도록 레벨을 활용하여 저층부를 계획함. 그리고 건축물의 배치를 밀도있게 배치하여 추후 토지의 활용 가능성을 높임. 경사지불을 가진 독립적인 디자인이 건물들이 서로 모여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한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장면을 나타내도록 계획함.
5등작 (8)	적절한 크기의 중정을 설정하고 지반 레벨에 다양한 크기와 용도의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이용자들에게 여러 경험이 가능하도록 함. 계획한 중정을 개방적으로 계획하여 공공건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함.

심사위원 :

김기중

(서명)



「파주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설계공모」

심사평

일시 | 2022. 12. 13. (수)

장소 | 파주시청 대회의실

당선작 (04)	불규칙한 경계와 경사지 대지의 이해, 두 기능의 분리와 통합, 주변에 대응하는 형태구성의 원리, 마감 재료의 선택, 도면의 표현 등 전반적 완성도가 가장 높은 안이었다. 동서 방향의 긴 매스를 전면부에 배치하고, 높이가 다른 두 개의 장방형 매스를 배면에 연결하고, 중정과 회랑으로 동선을 유도한 점에 특히 주목하였다. 파주시의 새로운 공공건축의 좋은 사례가 되리가 기대하였다.
2등작 (27)	대지의 특성, 특히 향후, 철거와 순차적 건설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배치에 반영한 가장 우수한 안으로 판단하였다. 북서쪽에서 완만한 경사를 따라 자연스럽게 열린 중정 공간으로 진입하는 동선, 그 사이의 정원이 매력적이었다. 동쪽 모서리 땅을 남기는 배치도 사업의 특성상 유연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당선작과 마지막까지 경합을 한 안이었다.
3등작 (36)	남쪽에 긴 장방형 매스, 배면에 두 개 매스를 연결하여, 북서쪽으로 열린 마당을 만들고 자연스러운 경사를 만들어 주변과 건물 등을 연결한 탁월한 안이었다. 남은 대지를 주차장과 조경으로 세심하게 계획한 점도 돋보였다. 당선작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 완성도가 높아 마지막 단계까지 심사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4등작 (14)	진입부로 열린 마당 주변으로 잘게 분절된 매스를 배치하여, 인간적 척도의 공동체 공간을 만든 점이 매력적이었다. 동쪽에 넓은 주차장을 배치하여 향후 단계적 개발을 고려한 배치도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이라 평가했다,
5등작 (8)	마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크기의 분절된 매스를 연결한 안으로 작은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설계한 완성도 높은 안이었다. 지층의 많은 부분을 들어 올린 선택은 잦은 침수를 대비한 건축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심사위원 : 김성홍 (서명)

「파주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설계공모」

심사평

일시 | 2022. 12. 13. (수)

장소 | 파주시청 대회의실

당선작 (04)	당선작은 대지가 지닌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낸 수작이다.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을 연결하는 장방향 매스는 강변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다채로운 경관을 형성한다. 또한 좌우 매스의 유사한 듯 서로 다른 위계는 공간의 풍요로움을 형성하리라 기대된다. 재료와 구조의 일관성을 통해 절제되어 있지만 풍요로운 공간과 경관은 대지에 새로운 유형의 공공건축물로 자리매김 할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등작 (27)	대지가 지닌 복잡성을 열고 닫힌 상호성을 통해 담아낸 수작이다. 특히 맞이마당, 리틀포레스트 사이마당으로 연결되는 진입공간의 흐름과 중정 그리고 건물의 관계는 대지가 지닌 한계와 특성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대지가 지닌 가능성을 극대화한 안으로 당선작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논의를 이끈 안이다.
3등작 (36)	열린 중정과 개방된 공간의 특성을 통해 어려운 부지내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의 특성을 잘 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수평매스와 분절된 매스의 상호적인 관입은 풍요로운 복합센터의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다른 프로그램을 조화롭게 담고 있다.
4등작 (14)	입체적인 매스와 플랫폼의 관계를 통해 중정이 지닌 단조로움을 풍요롭게 형성한 우수한 안이다. 특히 남북방향으로 열린 플랫폼과 중정의 구성은 대지가 지닌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키며 보행과 차량의 안정적인 진입과 열린 공간의 특성을 담아내고 있다.
5등작 (8)	분절된 매스와 섬세하게 조율된 외부공간의 구성력이 돋보이는 우수한 안이다.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의 공간이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안과 밖, 구심공간과 주변공간의 확장성이 돋보이며 공유하는 공간의 개념이 인상적이다.

심사위원 : 나 은 중

(서명)
나은중

「파주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설계공모」

심사평

일시 | 2022. 12. 13. (수)

장소 | 파주시청 대회의실

당선작 (04)	까다로운 대지조건 속에서도, 대지레벨을 잘 활용하면서도, 효율적인 동선계획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공간들을 만들어 내는 완성도 높은 탁월한 안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긴 여정 끝에도 완성도 높은 실제의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등작 (27)	문산도서관과의 레벨차이를 옹벽이 아닌 자연스러운 지형으로 연결하며 계획한 맞이마당과 리틀포레스트는 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열린 태도의 영민한 접근법이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명확한 분리 및 효율적인 동선계획 나아가 향후 대지의 추가활용을 위한 여지까지 세심하게 고려된 훌륭한 계획안이었습니다.
3등작 (36)	이용객이 다양한 레벨에서 접근하게 될 것을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설계한 훌륭한 안이었습니다. 또한 남서측 개포래로 도로변에서의 시각적 정면성 확보 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에서 강을 향해 시원한 조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 훌륭한 안이었습니다. 다만, 중정 너머의 풍경이 필로티주차장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방법이었던, 대로의 수평매스의 입면을 강조하기 위해 후면의 입면이 좀더 힘을빼는 전략이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4등작 (14)	대지의 북,남, 서측 세 방향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접근 동선을 건물의 중심공간인 중정으로 모아주며 머무는 마당의 위계를 확실히 하면서도 프로그램의 분리를 명확히 해주는 훌륭한 안이었습니다. 다만, 북측코너에서 모두의 마당을 향한 시선이 좀더 확보되었다면, 지역주민에게 좀더 열려있는 인상을 주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5등작 (8)	팬데믹상황을 고려하여 각 프로그램별 명확한 구분은 물론, 또한 차량의 영역과 이외의 영역을 소공원의 영역으로 분리하고자 한 안이었습니다. 중정공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과 외부공간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만들하고자 한 훌륭한 안이었습니다.

심사위원 : 이소정

(서명)

「파주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설계공모」

심사평

일시 | 2022. 12. 13. (수)

장소 | 파주시청 대회의실

<p>당선작 (04)</p>	<p>연접도로 및 연접대지와와의 높이차 때문에 차와 보행자의 진입의 제한성과 그에 따른 복합적인 정면성의 요구, 공사비를 고려한 효율적 기준레벨의 구축 등 부지가 가진 계획의 난이도를 높이는 조건에 더하여 두가지 공공시설의 복합이라는 점까지 이번공모는 건축가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였다. 당선작은 남서측 하천제방을 따라 수평의 매스를 띄워 공공장소의 정체성을 멀리 드러내는 잔잔한 랜드마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할 이웃한 지역을 향해서는 이를 넉넉하게 받아주는 외부공간과 입체적인 공공의 플랫폼을 이 장소가 요구하는 적절한 스케일로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두가지 공공서비스의 사용자와 가까이 거주하는 시민의 소공원이 되줄 외부공간은 잘 짜여진 순환동선, 적절한 프로그램과 만나 조망의 경관이 아닌 거주하는 경관을 구축한다. 내부공간의 짜임새 있는 평면 또한 보호수목을 비롯한 녹지와 이 장소에 머무를 시민들 사이의 풍부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리라 기대한다.</p>
<p>2등작 (27)</p>	<p>까다로운 조건의 부지전체를 프로그램 매스의 균형있는 배치를 통해, 새롭게 탄생할 공공장소에 풍부한 성격을 부여할 복수의 외부공간으로 재정의해낸 점이 돋보인다. 이에 따라 건물로 전체 부지를 메우지 않고 고도 미래를 위한 증축가능부지까지를 여백으로 포함해 전체부지를 통합된 장소로 구축해 냈다. 진입부를 별도의 인공구조물을 배치하지 않고 진출입구레벨과 중정의 레벨사이를 완만히 잇는 조경으로 열어두는 진입공간의 계획은 협소한 진입부에서 중정과 증축예정부지까지 단계별로 부지내부로 깊숙이 이어지며 이 장소로 시민을 초대하고 환대하는 현관의 역할을 훌륭히 구축한 제안이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내부평면이 다소 단조로웠던 점, 외피계획의 장소의 성격과 통합성 등은 아쉬웠다.</p>
<p>3등작 (36)</p>	<p>부지 남서측 하천 제방 및 도로와 나란히 수평의 매스를 배치한 점은 당선작과 유사하면서도 공공의 플랫폼으로 이 매스를 적극활용하려 한점에서 대조적인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지면레벨에는 주차를, 매스 내부는 조망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배치하고, 옥상을 전망용으로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공장소의 플랫폼으로 구축하려 했다. 이에 비해 주된 진입이 이루어지는 부지 북측의 진입구에서의 정면성, 방문자를 초대하는 제스처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보인점이 아쉬웠다.</p>
<p>4등작 (14)</p>	<p>주 진입이 이루어지는 대지 북서측에 중정을 포함해 두 공공서비스를 복합해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과 동시에 미래를 여유부지를 넉넉하게 확보했다. 소형건물군의 집합체 같은 매스의 구성으로 이웃한 근린의 스케일을 고려한 세심함이 돋보인다. 하지만, 여백의 외부공간과 집중되어 배치된 복합건축물의 불균형이 부지 전체를 하나의 장소로 통합하는 이번 공모의 주요 과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드러난 제안이었다고 생각된다.</p>
<p>5등작 (8)</p>	<p>본 공모를 통해 목적하는 건축, 공공서비스를 구축할 때 어떻게 대지를 비롯해 물적/인적 자원을 어떻게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 것일까, 8번 응모작은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공모전'의 틀에서 놓치기 쉬운, 그러나 중요한(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질문을 던진다. 공공장소의 구축은 공공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미래환경을 고려한 '적정성'에 대한 치밀한 고민이어야하지 않나 제고하게 한다. 물론 이 태도가 새로운 공공의 플랫폼으로 역할하기에 필요충분한 건축과 외부공간의 전략적인 계획, 장소로서의 통합성을 이루는 계획과 만나야함은 물론이고 이 점에서 아쉬움이 큰 제안이다.</p>

심사위원 : 조재원

 (서명)

「파주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설계공모」

심사평

일시 | 2022. 12. 13. (수)

장소 | 파주시청 대회의실

당선작 (04)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이라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시설로서 대응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공공성을 기저로 하는 “장소”로서 접근한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변의 대로에서 마주하는 시각적 정면성은 선형적으로 흐름을 만들어 주변과 잘 어울리고 반대편은 마을을 향한 다양한 스케일의 열림과 닫힘을 통해 방문객들이 외부공간과 더불어 내부를 유연하게 사용하게 합니다. 동선의 구성과 층별 구성을 통한 조닝 또한 합리적입니다.
2등작 (27)	크게 열려있는 맛이 마당과 필로티 하부를 거쳐 접근하는 리틀포레스트의 중정 그리고 그 너머로 이어지는 또 다른 정원 등의 시퀀스는 본 프로젝트 제안이 가지는 핵심적가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라운드 레벨의 식당은 중정과 정원쪽으로 열리며 쾌적한 사용성을 만들어 내고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이음마루 역시 한 레벨 위에서 적절한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사이트 여건에서 가장 탁월하게 공공성의 가치를 내외부적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3등작 (36)	수직성과 수평성을 통해 직조되는 건축적 구현 방법이 훌륭하고 인상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보존수목과 조화되는 큰 내부 중정은 위요된 공간이면서 주어진 모든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주는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강변을 조망하는 선형적인 실배치와 매우 기능적인 두 매스가 중정과 함께하는 밀도있는 구성이 돋보이는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축적이고 건축적인 완성도가 매우 높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등작 (14)	마을처럼 보이는 분절된 매스가 중정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 제안이었습니다. 잘 구성된 조닝과 층별로 조성된 실배치가 기능적입니다. 사선의 지붕은 안쪽을 향하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전체적인 인상을 편안하게 합니다. 마을과의 관계에서 서로 접근하는 방식이 다소 아쉽습니다.
5등작 (8)	굉장히 밀도있게 구성된 평면이 이 프로젝트의 훌륭한 면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도의 구성이 다소 과해 보일수도 있겠으나 적절하게 분절시키고 열어주면서 해소 시키고 있습니다. 중정을 둘러싸는 매스,데크,브릿지 등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면서 내외부 공간을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 신호섭



「파주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설계공모」

심사평

일시 | 2022. 12. 13. (수)

장소 | 파주시청 대회의실

<p>당선작 (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지소와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공용공간의 기능적 공간구성을 간결한 건축물의 형태로 구현한 것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였음. - 남측 천변도로의 선형적인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수평적인 매스의 구성과 전체적인 디자인의 일관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였음. - 실내의 용도에 맞춰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면밀하게 구성한 작품이라고 평가하였음.
<p>2등작 (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배치에 따른 외부공간 구성의 접근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였음 - 대지와 동측도로의 레벨차이를 조경적으로 자연스러운 대지로 구성하면서, 외부공간을 품어내는 건물의 배치가 훌륭하다고 평가하였음. - 경로식당을 중심으로 보건지소와 복지시설의 공간배치계획은 긍정적인 반면, 매탈매쉬로 일혀지는 건물의 외형적인 디자인에 대한 완성도와 설득력이 약하다고 평가하였음.
<p>3등작 (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천변도로변에 투명한 수평매스가 인상적으로 표현된 작품으로, 선형의 브릿지를 통하여 보건지소와 복지시설을 연결하는, 간결한 건축적 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주요 보행접근동선으로 예상되는 북동측 진입공간에 전면성을 구성하는 건물매스와 상징적인 입구의 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인방으로 해석되는 수평띠를 활용한 입면의 디자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함이 있었음.
<p>4등작 (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정을 중심으로 경사진 지붕의 형태와 조적의 외관 그리고 수평적인 연결브릿지의 구성이, 평가자의 사견으로, 파주의 건축적 이미지에 부합하는 계획안이라고 평가하였음. - 건물의 배치와 공간 구성이 긍정적인 반면, 대지의 외주부가 주차장으로 둘러싸이고, 건물의 형태적 자세가 주변과는 등지는 배타적인 구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의 고민이 있었음.
<p>5등작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수목을 적절히 활용한 중정형 배치계획과 간결한 매스의 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지표면층에 코어 및 최소한의 공간을 설치하고, 주요시설은 2층과 3층으로 띄운 전략이 침수가 우려되는 대지의 조건에 부합하는 건축계획안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대지의 레벨을 남측 주출구와 동일한 높이로 전체적으로 성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심사위원 : 심재현 